

현장 누비는 불자와 단체들

초종파적 화합과 결속력 다지는데 앞장

마창불교 숨은 일꾼-박수철 마창불교련 사무국장



행사 진행에 여념이 없는 박수철 국장(왼쪽).

화려한 행사의 뒤편에서 서서 드러나지 않게 그 행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챙기는 사람이 있다. 벌써 15년째 마산장원불교련

합회(회장 원정) 사무국장으로서 일하며 마산, 창원 지역 불교계의 대소사를 일일이 챙기는 박수철(54·성일) 사무국장.

마창불교연합회가 초종파적인 화합과 결속력을 자랑하는 조직으로 성장하기까지 '화합의 윤활유'가 되어온 박 사무국장의 보이지 않는 역할이 컸다는 게 지역 불교계 스님들과 재가자들의 한결같은 말이다. 때론 좋지 않은 뒷얘기를 감당해야 하고 때론 저마다 다른 주장들을 홀로 갈무리해야 하는 때도 많았지만 불교 발전을 위한다는 큰 목표가 그 모든 어려움을 참

재왔다.

"지금은 지역 불교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스님들과 재가자들이 많아져 연합회 활동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자평한 박 사무국장은 "이제는 스님들의 원력에 발맞춰 앞장서 일할 재가불자들의 연합회가 만들어져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벌써부터 박 사무국장은 마산과 창원의 불교신도회 창립을 서두르며 준비 작업에 여념이 없다.

"제가 불교 운동에서 은퇴는 없다"는 박 사무국장의 조용하면서도 확고한 신념은 지역 불교의 든든한 조직 기반을 다지는 초석이 되고 있다.

천미희 기자

참신한 기획과 뛰어난 추진력으로 승부

나눔의 '화신' -김영섭 광주 자비신행회 사무국장



김영섭 국장(맨 오른쪽)이 헌혈증을 전하고 있다.

"불자들은 바로 샘터입니다. 그같이 훌륭한 생명의 샘물을 남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비신행회와 생명나눔실천 광주

전남 지역본부 실무를 맡아 광주시로부터 2004, 2005년 연이어 공모사업 단체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영섭 사무국장은 "기획이 좋아 불교가 살고, 좋은 기획은 성공하기 마련이다"고 확신한다.

지난달 생명나눔 분야를 후임에게 넘기고 자비신행회에 주력하고 있는 김 국장은 1999년부터 10여개 공모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주역.

나눔의 화신 포대화상을 연상케 하는 동안(童顔)의 김 국장은 공모사업을 통해 불자들의 실천행 뿐 아니라 불교사상을 바탕

으로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운동성격의 공모사업에 힘쓰고 있다.

현재 자비신행회와 생명나눔이 펼치는 운동은 시민들의 호응이 높아 헬스관 헌혈로 50여명의 환자에게 생명을 나누고 있으며, 매년 7000장의 헌혈증과 8000여 만원의 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활동으로, 타종교계가 주류를 이루는 광주지역 300여개 시민단체 중에서도 복지부문을 선도하고 있다.

"일 욕심이 많아 항상 새로운 사업을 구상한다"는 김 국장은 새해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쉼터를 마련하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준엽 기자

"함께 즐기는 불교 필요...충청 불심 일으킬 것"

불교문화 꽃 피우는 충북불자예술인연합회



충북불자예술인연합회 창립대회 모습.

"대중들과 함께 호흡하는 문화포교가 필요합니다. 120여 회원들과 함께 활기차고 신나는 포교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2월 1일 창립된 충북불자예술인연합회 지순애(56·대효심) 회장은 기다리는 포교가 아니라 함께하는 포교로 지역 불심을 움직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앞서서 기다릴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지 회장은 또 "이제는 톨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신행생활을 뛰어 넘어 함께 즐기고 웃을 수 있는 불교가 필요하다"며 지역 불교를 새롭게 일으키겠다는 일념으로 대중 문화포교에 뛰어 들었다.

"불교계 안팎에는 수많은 각종 행사가 있지만, '행사는 그저 행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아쉬움을 표한 지 회장은 "규모의 크기 정도를 따지지 않고 어디라도 달려가 불심을 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실 120여 회원들은 각자 크고 작은 행사에서 나름대로 '문화포교사'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함께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면서 연합회를 만들게 된 것이다.

연극·음악·미술·문학 등 충북의 문화예술인들이 대거 참여한 예술인협회는 앞으로 정기법회 등의 신행활동은 물론 각종 문화행사와 정기공연을 개최해 불교 문화와 지역문화 창달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 방침이다.

유철주 기자

"노하우 바탕으로 전문화된 봉사 펼칠 것"

고양복지 우리 손안에-천수천안봉사단



환경정화활동을 벌이고 있는 천수천안 단원들.

'지역 불교복지활동을 보려면 고양으로 가라!' 불자들 사이에서 '강령'처럼 회자되고 있는 이 말은 바로 고양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지역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천수천안' (이사장 도명·덕양사 주지)을 두고 나온 말이다.

덕양사와 흥국사, 불덕사, 노적사, 자비정사 등 고양시 사암련 소속 10여개 사찰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2002년 출범한 천수천안은 2003년 사단법인으로 거듭나면 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천수천안의 공식회원은 현재 800여명. 2004년 6월에는 남양주·구리시 지부가 지역사찰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창립되기도 했다. 남양주·구리시지부 회원도

500명에 달한다.

국립암센터를 비롯해 일산노인복지관, 고양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50여개 시설에서 정기적으로 봉사 활동에 나서는 것은 물론 군법당 포교와 지역사회 지원활동에 서도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해내고 있다.

활동이 이와 같이 광범위하게 진행되다 보니 천수천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평가는 긍정적인 수밖에 없다. 매년 이뤄지고 있는 자원봉사교육에 참여하는 이웃종교인들의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는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천수천안 박유아 단장은 "이제는 차매와 노인복지 등의 분야에서 전문화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교육 불사로 정평, 어린이법회 복원에 전력

3200여 동문 전법사로-강원불교대학 총동문회



강원불교대학총동문회의 신년하례법회 모습.

강원 지역 최초의 불교대학인 춘천 강원 불교대학(학장 편백은·석양사 주지)은 불교 교리는 물론 동양사상과 철학 등의 수준

높은 교육으로 정평이 난 곳이다. 또 태고종 포교사단 300여명 넘게 배출된 '명문'이다. 그래서 지역불자들의 입학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지역사회에서는 '강원불교대학'을 졸업하지 않고서는 명함도 내밀지 못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다.

이러한 위상을 가진 강원불교대학을 졸업한 3200여 동문들이 다시 강원불교대학 총동문회(회장 김윤호)를 통해 강원 도내 지역 곳곳에서 포교와 전법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강원지역 포교의 산실이라는 평이 전혀 낯설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분야

에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행사는 기본이고 지역 스님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순회 법회는 분기별로 이뤄진다. 매년 초 춘천, 원주, 동해 지역에서 열리는 '나라발전과 불교중흥을 기원하는 신년하례법회'는 지역법회의 또 다른 모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 올해 4월 화마가 닳고 지나간 양양 낙산사 복구 지원활동을 전개한 것을 비롯해 매년 여름 강원 도내에서 발생해서 수해 복구 활동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강원불교대학총동문회 김윤호 회장은 2006년을 사찰 어린이 청소년법회 복원의 해로 정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조직화된 분과 통해 대사회 활동 활발

13년 전통의 거사모임-제주 불다클럽



지난 5월3일 열린 불다대상 시상식 모습.

'거사불교'를 주창하며 포교와 사회활동에 전력하는 단체가 있다. 바로 13년 전통을 자랑하는 제주 불다클럽(총회장 이춘

기)이 그 주인공이다. 1992년 60여명의 재가자로 출발한 불다클럽은 현재 200명이 넘는 회원들이 5개 분과로 나뉘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회복지를 비롯한 문화예술, 지역사회, 환경, 회원들의 자질향상 프로그램운영 등으로 집중성을 보이고 있다.

또 각 지역별로 조직된 4개 지회는 한 달에 한번 이상 지역법회를 봉행하는 것은 물론 교육과 포교, 복지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불다클럽은 매년 부처님오신

날 실시하는 '불다대상' 시상식을 통해 도민들의 사회활동을 격려하고 있다. '효행'을 비롯해 '전통문화예술', '사회봉사' 등의 분야에서 한 해 동안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온 사람들을 시상하는 불다대상은 종교에 구애받지 않는 시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불다클럽 이춘기 총회장은 "남성 신도들이 젊 문턱을 보다 쉽게 넘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아직도 중요한 과제"라며 "2006년에는 3~40여곡의 불교의식곡을 CD로 제작해 도내 사찰에 보급하고 제주 이외의 지역에 불다클럽 지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철주 기자

謹賀新年

지혜와 자비로 키워낸 이십만 인재가

새로운 100년의 '두드림'을 시작한다!

100th Anniversary DONGGUK UNIVERSITY

미래의 꿈과 희망을 향한 가슴 벅찬 '두드림 Do Dream!' 민족과 함께 달려온 동국대학교가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커다란 두드림을 시작합니다.

Do Dream!

丙戌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전국 비구니회

회장 명성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44 TEL 02)3411-8103-7 / FAX 02)3411-8108